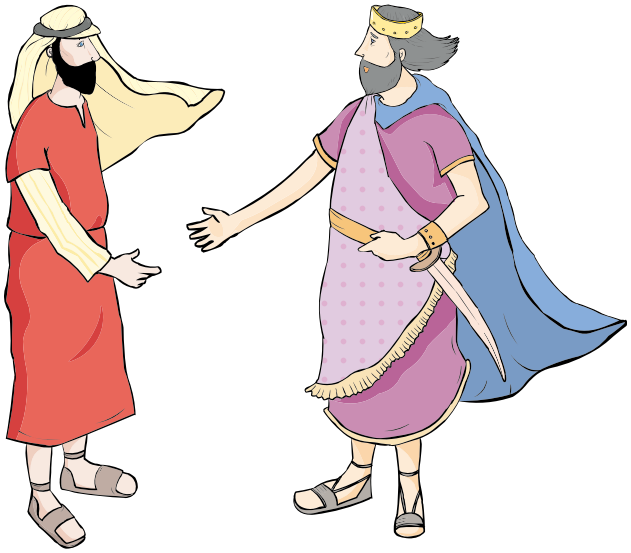
머릿돌

3·4 학년

제8권



발행처 영생의말씀사
기　획 생명의말씀선교회 교회학교초등부
디자인 문서선교부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305번길 37
연락처 070-7121-1280(문서선교부)
홈페이지 www.jbch.org (생명의말씀선교회) www.school.jbch.org

2026년 3 · 4학년 머릿돌 제8권

40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 4 10월 4일

41 살아나신 예수님 … 10 10월 11일

42 다시 오실 예수님 … 15 10월 18일

43 포도나무의 비유 … 20 10월 25일

44 예수님을 증거한 베드로 … 25 11월 1일

45 빌립의 전도 … 30 11월 8일

46 변화된 바울 … 35 11월 15일

47 고넬료 가족에게 전해진 복음 … 40 11월 22일

48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 45 11월 29일

49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 50 12월 6일

50 성령의 열매 … 55 12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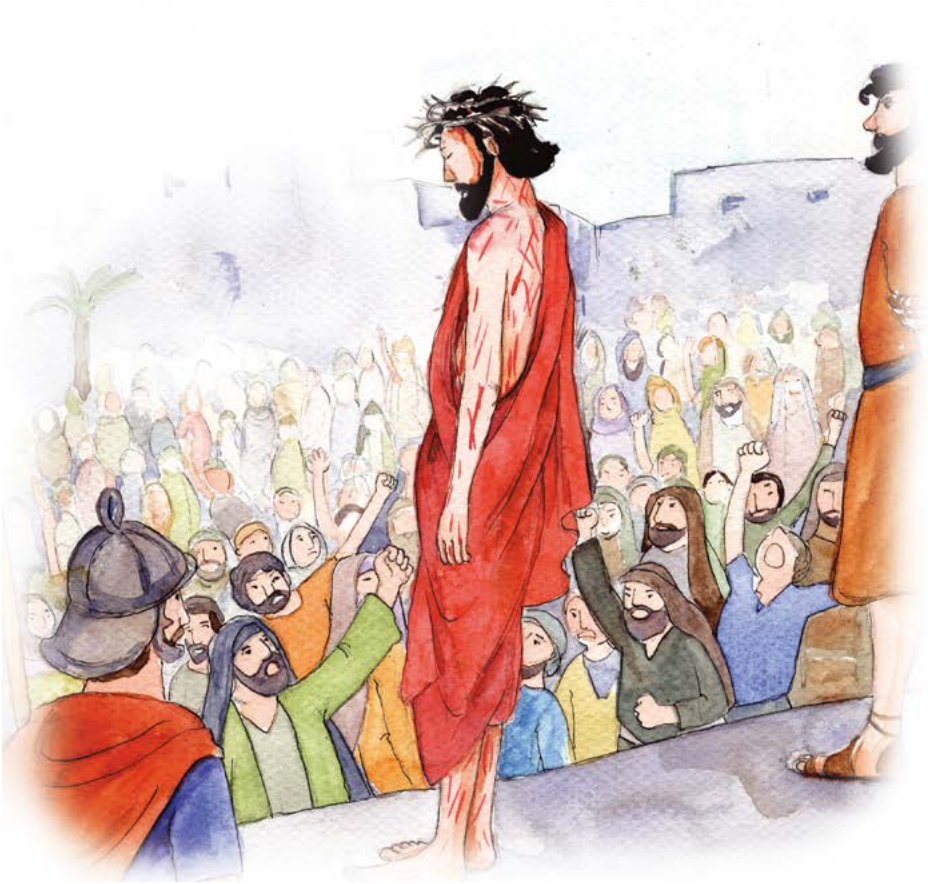
51 새 하늘과 새 땅 … 61 12월 20일

52 학년을 마치며 … 66 12월 27일

이것만은 기억해요! 72

40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요한복음 18 ~ 19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 하인들에게 잡혀 빌라도에게 보내지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는 아주 나쁜 살인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30)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노력했지만, 유대인들은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를 없애주시오! 없애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신 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그 곳에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욕하고 놀렸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의 공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1.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의 삯은 ☐☐ 이요 (로마서 6: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 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12)

2.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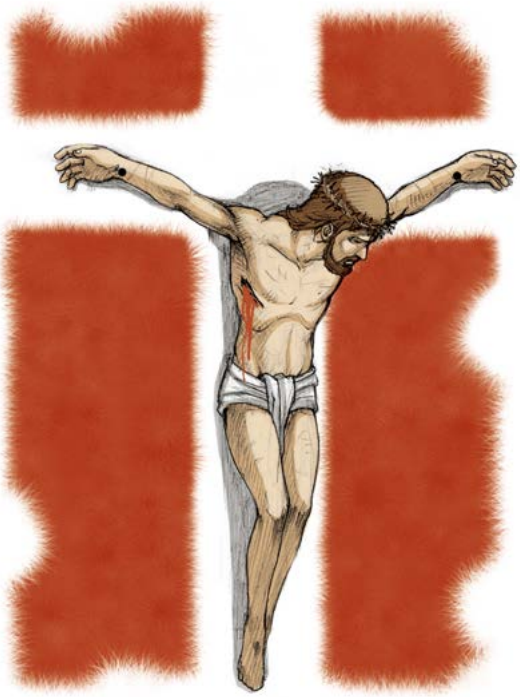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 을

☐☐ 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15)

오늘의 공부

예수님께서 하신 일

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적어 보세요.(요한복음 19:30)



2.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고 가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 를 ☐☐☐ 하는

☐ 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3)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죄와 예수님의 고통

? 다음 그림을 보고 우리의 죄에 따라 받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연결해 보세요.

- 발로 지은 죄
- 머리로 지은 죄
- 손으로 지은 죄
- 마음으로 지은 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5)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에는 원래 누가 매달려 죽어야 했나요?

? 예수님께서는 왜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알아볼까요

* 사랑의 능력

홀트 아동복지회 휠체어 하우스 개관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를 세운 홀트 씨의 딸에 대한 간증이 있었는데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하루는 신체부자유 아이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기가 그 자리에서 대소변을 배설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눈살을 찌푸릴 법한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스푼을 내려놓더니 그 아이를 깨끗하게 다 씻긴 다음 다시 데리고 돌아와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자원해서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내 마음은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이웃을 위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자기 동포도 아닌 다른 나라 사람, 그것도 건강하지 않은 신체부자유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